

아quem주보

죽은 모든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마태 5,12)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첫째 미사

오늘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에 교회는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하며 그들이 하루빨리 정화되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맞이할 죽음을 생각하며 더욱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도록 결심해야겠습니다.

• 제1독서

욥기 19,1.23-27ㄴ

• **입당송** 1테살 4,14; 1코린 15,22 참조

• **화답송** 시편 27(26),1.4.7과 8ㄷ과9ㄱ.13-14(◎ 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입니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로마 5,5-11

• **복음환호송** 마태 25,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이 와서, 세상 창조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 알렐루야.

• 복음

마태 5,1-12ㄴ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통공 안에서 믿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굽어살피시어, 전쟁과 폭력을
멈추고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참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세상 부부들을 돌보아 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중히 받아들이며, 주님의 일에 협조자가 되고 주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위령성월을 맞은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를 살피 주시어,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하며 공동체와 나누었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 영성체송

요한 11,25-26 참조

[남아라비아 대목구] 사제 연피정



▶ 기 간 : 11 월 3 일 (월) ~ 11 월 6 일 (목)

중동에서 사목하고 있는 사제들이 하느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새롭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캠] 11월 '위령성월' 전대사 안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잠벌(暫罰)을 전부 없애주는 전대사를 위령성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일 ~ 8일까지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는 11월 2일 '위령의 날'에 (또는 교구장 동의 시, 그 앞이나 뒤에 오는 주일 또는 모든 성인 대축일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하여 그곳에서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면** 전대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전대사는 본인에게 적용할 수 없고 **연옥 영혼을 위해 양도만** 할 수 있습니다.)



[아부다비] '아가페' 성가단원 모집



노래로 기도하는 사람들, 아가페 성가대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은 음정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 한 몸의 기도가 될 때, 그 순간 하느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십니다.

지금 그 한 음 ♪ 을 더해주세요.

[교종 레오 14세] 11월 기도 지향

11월: 자살 예방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관심과 사랑을 찾고, 생명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카이로(이집트) 공동체>: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 사목 방문



‘전다인 올림피아’ 자매님의
세례를 축하드립니다~!!

10월 24일 (금) 11:00am



10월 22일 (수) ~ 25일(토)



우리들의 <묵상과 나눔>



박세원 마르타 (아부다비 공동체, UAE)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 모리 슈워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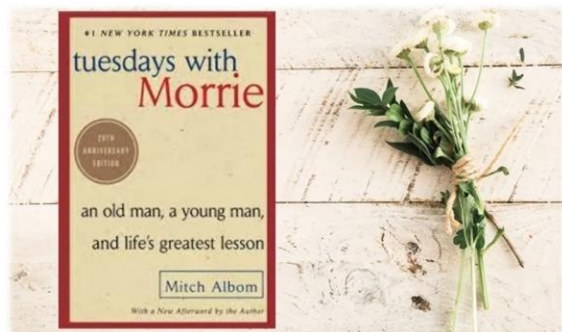
얼마 전 나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슬픈 일이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성당에 갈 차비를 하느라 분주한 나에게 동건이의 친구 페드로의 엄마로부터 왓챗 문자가 왔다. “안녕, 할 말이 있는데 전화해도 될까? 000 000 0000, 이게 내 여기 전화번호야.”

동건이가 또 무얼 잘못된 것일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하는 대신에, “그래, 무슨 일인지 알려줄 수 있어?” 하고 답장을 보냈다, “페드로가 죽었어. 페드로가 왜 이제 동건이 전화를 못 받는지 알려주고 싶었어. 며칠 전에 동건이랑 같이 놀았던 걸로 알고 있어. 동건이의 아름다운 우정에 정말 감사해. 페드로가 동건이를 무척이나 사랑했어.”

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스팸문자일까. 아들의 부고를 저리도 담담하게 전달하다니...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할까.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참 동안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려보고 나서야 진짜로 페드로가 세상을 떠났음을 확인했고, 복받치는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친구 몇 명과 엄마들이 모여 페드로의 집에 방문했다. 문 앞에서부터 들리는 통곡소리에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문이 열리고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한참을 울었다.

페드로는 평소 건강한 아이였고, 어느 누구도 그 아이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충격은 더할 나위 없이 컸다. 나에게는 그동안의 어떤 이별보다도 더 죽음을 체감하는 일로 다가왔다.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지만 세상은 놀랍게도 그대로 돌아간다.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배꼽시계는 때가 되면 울려오고, 재미있는 장면을 보



면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나는 죽음에 대해 더 생각해 보고 싶어서,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루게릭 병으로 인해 시한부 삶을 사는 모리 교수와 16년 전 제자 미치가 재회하여 화요일마다 만나 나누는 인생과 죽음에 대한 대화 형식의 고찰이었다.

죽을 때를 알고 남은 삶을 정리하는 노년의 모리 교수와 생각지도 못한 불운으로 어린 나이에 황망하게 떠난 페드로를 서로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누구나 죽을 것이며, 누구도 그걸 인정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모리 교수의 말에서 모두가 죽는 때와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면 이별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죽음을 인정함으로써 삶에 대한 태도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욕에서 일하는 무명의 피아니스트였던 미치는 자신이 사랑하던 외삼촌의 이른 죽음을 목격한 후, 야심 찬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변신하고, 승승장구한다. 성취감에 젖어 자신이 인생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며 행복의 마지막 조각까지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미치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리 교수와의 만남을 더해가면서 물질적인 성공이 채워주지 못하는 삶의 의미를 성찰하



기 시작한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최대한 인간답게 살아야 하며, 그것의 중심은 결국 사랑이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마음을 여는 것, 관계 속에서 행복해질 노력을 하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고 고까지 사랑을 강조한 모리 교수의 말은 가톨릭교회가 우리의 사명처럼 강조하는 사랑과 일직선상에 있다.

자식을 잃은 슬픔, 그 어떤 슬픔에 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죽음이 이토록 슬픈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곧 축복이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슬픔을 통하여 그 아픔이 열어지고 치유받는 힘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 같기도 하다.

죽음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노래한 고 윤동주 시인의 말과 '우리는 태어난 걸로 이미 목적을 다했다'라고 청춘을 위로했던 가수 고 신해철의 말을 빌려 페드로가 편안하게 주님 곁에 다가갔기를, 그리고 페드로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하루빨리 삶이라는 축복 속에 힘 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한다. <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눠 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라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love,
and to let it come in.)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Love each other or perish.)

인생은 밀고 당김의 연속이야.
난 이려고 싶지만, 저래야만 해.
그리고 사랑이 언제나 이기지.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네.
(Love wins. Always.)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관계를 끝내지는 못해.
(Death ends a life,
not a relationship.)

- from 'Tuesday with Morrie'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오, 하느님!

창조주이시며 믿는 이들의 구세주여!
믿음으로 당신을 따르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성령과 함께 세세에
영원한 세상을 이루소서. 아멘.



교회 가르침에 맞는

상장례 상식 바로 알기



한국교회의 상장례 문화는 조상 제사 금지로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사를 드리는 대신 부활 신앙 안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고유한 '위령기도'(연도)는 아름다운 관습으로 이어졌다. 교회의 상장례 예식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드러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는 기회다. 한국교회는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2003년 「상장 예식」 출판을 통해 전통 상제례와 현대 감각에 맞춘 우리만의 예식서를 선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상장 습속과 교회의 상장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상장례 예식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Q. 49재(四十九齋) 연미사 봉헌해도 되나?

가끔 본당 사무실에서는 사십구재 미사를 신청하는 신자들이 목격된다. 한 사목자는 “사십구재 미사를 봉헌해야 한다며 49대의 연미사 예물을 접수하는 신자가 있었다”고 들려줬다. 한 마디로 이는 교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관습이다. 사십구재는 불교의 윤회관을 바탕으로 한 제례 양식으로서,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천도 의식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대개 새로운 몸을 받아 환생하기 전까지 저승에서 49일 동안 머문다고 한다. 그때 7일마다 저승의 왕들에게서 선행과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통과하면 조건에 맞는 곳으로 환생할 수 있다. 심판을 통과 못 하면 다음 7일째 되는 날 다시 심판을 받는다. 최종 심판을 받고 누구나 환생하게 되는 날이 49일째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사십구재는 가톨릭의 죽음에 관한 이해와 전혀 의미가 다르다.

Q. 돌아가신 분 유골을 뿌리거나 집에 보관할 수 있나?

세상을 떠난 이를 화장한 뒤 남은 유골을 허공이나 땅, 바다 등의 장소에 뿌리거나(산골, 散骨) 집에 보관할

수 있을까.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훈령 「그리스도교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5항에서 “합법적 이유로 시신의 화장을 선택한 경우,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은 거룩한 장소, 곧 묘지 또는 어떤 경우에 교회나 이를 목적으로 마련되어 교회의 관할 권위가 지정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유골을 거룩한 장소에 보관하는 일은 유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추모, 유골에 대한 존중과 부적절하거나 미신적인 관습의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생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도 산골을 하거나 유골을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하려는 시도, 혹은 유가족들이 유골을 나누어 가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도 산골을 해서는 안된다. 적당한 안치소에 이름을 표기하고 매장해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산골을 반대하는 것은 ‘범신론’(汎神論, pantheism)이나 ‘자연주의’(自然主義, naturalism), ‘허무주의’(虛無主義, nihilism) 등의 표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자연과 물질을 움직이시되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자연 안에만 얽매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은 덧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게 하는 소중한 과정이고 일부이기에, 세상이 덧없다는 의미 혹은 자연에서 나온 사람을 다시 자연에 맡기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수원가톨릭대 교수 김의태(베네딕토) 신부는 “산골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 통념상 이미 산골을 한 경우는 양심을 거슬러 자유 의지로 행한 잘못과는 구별된다”며 “산골을 후회하며 고인을 기억하기를

< 위령성월 특집>

원한다면 기일에 고인을 위한 지향으로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위령기도를 드리면 된다”고 조언했다.

Q. 수목장(樹木葬)은 가능할까?

그리스도교 부활 신앙에 반대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수목장은 허용된다.** 『그리스도교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6항) 수목장은 화장한 분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것으로 매장의 의미도 포함되기에 산골과 같은 행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행위는 산골로 여겨지기에 교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주교회의 사목 자료 ‘산골에 관한 질의응답’에서는 “분골을 수목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을 경우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관점에서 범신론이나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Q. 삼우제는 지낼 수 있나?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신을 묘소에 두고 돌아온 다음, 영혼을 달래어 안정시키려고 초우(初虞)와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지냈다. 「상장 예식」에는 **삼우제를 토착화해 전례로 실천하도록 한 예식이 제시돼 있다.** 이 예식에서는 초우와 재우, 삼우에 연미사 봉헌을 권고한다. ‘삼우미사’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전례 용어다. 가톨릭대 교수 윤종식(티모테오) 신부는 “삼우미사는 그날 미사에 죽은 이를 위한 지향으로 미사 예물을 봉헌하고 유가족이 미사에 참례하는 형태일 뿐 연미사의 다른 형태가 아니다”며 “삼우제는 천주교회에서 민족 전통 장례 풍습 정신인 효의 표양으로 받아들여져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 후 사흘간 무덤에 묻히심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교회에서도 죽은 지 3일과 5일, 7일째에 미사를 드리는 관습이 오래전부터 전승돼 있다고 한다. 특히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3일을 기념하는 3일 미사가 많았다. 삼우제는 유교에서보다 한국 천주교회 전례에서 토착화된 예식으로 더 잘 드러나게 실천되는 사례다.



가톨릭 상장례 예식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드러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는 기회다. 그림은 <성 요셉의 죽음> 스테인드 글라스. 출처 위키미디어.

Q. 세례받지 않고 죽은 이를 위한 위령기도(연도)와 장례 미사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이를 위해서도 **위령기도를 바칠 수 있다.** 하느님은 모든 산 이와 죽은 이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연옥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연령’(煉靈) 호칭은 ‘죽은 이가 여럿일 때’(『상장 예식』, 35항) 사용 가능하다. 죽은 이가 한 분인 경우는 ‘아버지’나 ‘어머니’, 세례명으로 호칭한다. 죽은 비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000 형제에게’ 혹은 ‘000 자매에게’ 등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례미사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봉헌할 수 있다. 성당에서의 장례식은 생전에 교회적 친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임종 세례(예전에는 ‘대세’라 칭함)를 받은 이,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는 예비신자도 포함된다. 예비신자는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교회적 친교의 입문을 준비하는 사람이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로 여겨야 한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기들을 위해서도 장례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곧 **연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 가톨릭 신문 발췌, 편집 >

2025년 10 월 아캠 회계보고

(단위: AED/소수점 버림)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내 용	금 액	비 고	내 용	금 액	비 고	
아캠 기금	전월 이월금	17,962	(2025년 9월 이월금)	성무활동비	2,000	(아캠 전달 사례: 9월)	
	후원금	단체		출장비	1,000	(아캠 공동체 사로 방문 출장비)	
		개인	2,000	가난 기금	400	(10월 아캠기금 5% 적립)	
	납입금	아부다비	1,200				
		두바이	4,800				
		두바이스/바라카					
		카타르					
	기타 수입금 (이자 및 기타)						
		25,962			3,400		22,562
가난 기금	전월 이월금	12,046	(2025년 9월 이월금)				
	모금액	단체	400				
		개인	1,000				
		13,446			0		13,446
	수입 합계	39,408		지출 합계	3,400		36,008

< 아캠 후원금 상세 내역 >

개인: (1) 박효진 세실리아 (2) 진춘언 요한보스코 (3) 김화영 라우렌시오(가난기금) (4) 허정열 아델라이드(가난기금)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채팅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